

外人, 삼전 ‘사고’ 하이닉스 ‘팔고’… 배당·IPO에 수급 갈렸다

삼전 2.6조 매수·닉스 2.3조 매도
삼전 배당기준일 앞두고 매도 완화
솔리다임 美 IPO 추진, 닉스엔 부담

삼전·닉스 실적 전망 여전히 견조
배당락 뒤 외국인 매수 여부 주목

28일 삼성전자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43% 내린 27만원을 기록, 하루 만에 '27만 전자(주가 27만원대인 삼성전자)'가 됐다. 오라클이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건설 중인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가동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꺼내 들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하이닉스도 이날 5.05% 하락한 176만8000원에 마감했다. 오라클 이슈에 더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이르면 내년 미국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며 최근 투자은행(IB)과 '베이크 오프'(bake-off)라고 불리는 IPO 주관사 제안 회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주



따는AI로 생성한 이미지. 외국인이 추석 연휴 직전 삼성전자는 사고 SK하이닉스는 팔며 매매 방향이 갈렸다. SK하이닉스 매물을 받아온 자사주 매입은 이르면 10월 중순 끝난다.

모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휴 직전까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연휴 직전인 지난 21~23일 삼성전자를 2조5972억원 순매수한 반면 SK하이닉스는 2조2562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달 1~11일 두 종목을 각각 1조9600억원가량 순매도했고, 14~18일에는 삼성전자 2조6057억원, SK하이닉스 3조4237억원으로 매도 규모를 키웠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사고 SK하이닉스 주식을 판 것일까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은 연휴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삼성전자(1조3757억원)와 SK하이닉스(1조7311억원)를 함께 순매도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것일까. 아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트렌드포스 등 분석에 기반해 지난 15일 공개한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IC(연산·제어 담당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 등으로 1조6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증권가 눈높이도 올라갔다. 애플 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5조9030억원에서 21일 기준 111조3772억원으로 3개월 사이 5% 상향 조정됐으며,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78조1291억원으로 석 달 전(76조9134억원) 대비 약 2% 상향됐다.

고물가(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가 SK하이닉스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232%까지 치솟아 2007년 6월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도 5.502%에 마감해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도 아니란 게 시장 평가다. 두 기업 모두 자사주 매입 이슈에 놓여 있어서다. 23일 기준 삼성전자는 예정 물량의 85.95%, SK하이닉스는 66.27%를 사들였다. 남은 규모는 삼성전자가 약 2조1000억원, SK하이닉스가 약 1500억원이다. 현재 매입 속도라면 삼성전자는 이번 주 중, SK하이닉스는 10월 중순께 매입을 마칠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탈이 훼손된 것이 아닌 만큼 일시적인 수급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3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은 28일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1일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약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상장사의 주주환원 규모가 아니라 삼성전자 한 회사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3분기에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을 현금배당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남은 주주환원의 규모와 방식은 2026년 실적이 확정된 뒤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유안타증권은 연휴 직전 보고서에서 배당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의 매도 압력이 일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배당락 이후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나설지가 우선 확인할 대목이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각종 악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어 지금 반도체주를 사도 될지 섣불리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반도체 펀더멘탈과 함께 장기금리 상승 속도, 유가 안정 여부를 동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metro

정은보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도약할 것”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서 강조
거래소, 24시간 거래 확대 추진
ST 플랫폼·AI 시장감시 활용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8일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을 계기로 한국 자본시장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인프라 혁신과 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이번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가 한국 자본시장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적 자본 시장과 경쟁하는 등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변화의 중심에 서고, 글로벌 주요 거래소로 도약해 세계 자본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과 체질 개선,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우선 "자본시장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며 "24시간 거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달 아시아 최초로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 역내 거래소들과 함께 주식시장 결제 주기 단축도 추진해 거래 환경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 발맞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확산에 맞춰 토콘 증권(ST)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시장감시 등에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가 더 큰 미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열리던 IR 행사를 통합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넘어 지속적인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

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대표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의 주식·외환시장 개방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시장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스니더 대표는 한국거래소의 24시간 거래시간 확대와 주식 거래 다음 날 결제하는 'T+1' 체계 도입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시장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신중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도 압력 마지드 블랙록 글로벌 파트너스 오피스 공동대표는 특별연설에서 "자본에는 선택권이 있다"며 "각국 시장은 경제의 기초체력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놓고도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자에게 신뢰는 개혁과 정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실행력으로 쌓인다"며 "10년, 20년 뒤에도 이 시스템이 나라를 위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폴 세르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 이사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감독체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르베 의장은 "각국 금융시장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은 유연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며,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공통의 원칙 아래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연설에 나선 위니 쿤 캐피탈그룹 최고투자책임자(PIO)는 "자본시장 개혁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큰 보상이 따른다"며 한국의 상법·자사주 관련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증권 결제불이행 대비 1조 유동성 지원

예탁결제원·증권금융 담보대출 약정
오늘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대금 납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시장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 거래에 따른 증권회사와 고객 간 청산·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발생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한국증권금융은 결제불이행과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MSCI 선진국 자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기존 결제제도 개선에 더해 결제추진대금의 구조를 개편하고 결제이행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결제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다.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결제추진대금은 감소했다. 회원별 일평균 결제추진대금은 외국계의 경우 2025년 1148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2699억2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분기 1206억1000만원으로 5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9조4000억원에서 42조8000억원으로 45.6% 증가했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약정 체결에 따라 오늘부터 '결제추진대금의 증권납부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결제추진대금을 기존 현금뿐 아니라 주식·채권 등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내시장에서 수령 예정인 증권을 결제추진대금의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4분기 중 결제추진대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한투PE, AI·에너지 인프라에 1조 투자

AI DC·발전설비·ESS 등 대상

한국금융지주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가 그룹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1조원 규모의 투자 플랫폼 구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급증하는 연산 수요를 처리할 AI 전용 데이터센터(AIDC)를 비롯해 대규모 전력·발전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ESS), 초고속 통신망 등 AI 전환에

필수적인 디지털·에너지 인프라 실물 자산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앞서 한투PE는 국내 대형 인프라 거래를 잇달아 성사했다.

지난 6월 SK울산GPS와 SK멀티유틸리티의 지분 49%를 총 1조5952억원에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한화에너지 지분 투자 거래에 대표 투자자로 참여했다. 2023년에는 SK온의 프리 IPO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했다.

/신하은 기자